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일자리 정책 '우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 선정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성공 수행 높이 평가받아



전북도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 기관을 발굴하고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상생과 한국판 뉴딜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도가 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치단체(6곳), SK매직 등 민간기업(6곳),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6곳) 등 총 18개의 기관을 선정·시상했다.

도는 대기압이 떠난 폐허에 지역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을 탈피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점과, 전기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 부분에 높은 평가를 했다.

이를 통해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생산과 직접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전북도의 군산형 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정책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지속 인정받고 있다.

한편,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주)명신 에디스모터스(주) 등 5개 기업이 오는 2024년까지 5,171억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1년에는 2월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이어, 6월 (주)명신의 전기차

1호차 출고식, 8월 에디스모터스(주) 준공식 등 참여기업은 공장을 확보했다. (주)명신은 다마스·라보를 대신할 전기차 '다니고 밴'을 위탁 생산하고, 에디스모터스(주)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생산을 시작하며, 군산에 정착한 청년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주)명신이 320명, 에디스모터스가 97명을 채용하고, 특히 에디스모터스는 77명을 지역주민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모범이 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3,4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지원받아 참여기업의 조기 안착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꼭 이뤄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변화·혁신의 황금시대 열 것"

두세훈 전북도의원
완주군수 출마 선언

수소산업 1번지 등
7개 부문 공약 발표



두세훈 전북도의원이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완주군수 출마 기자회견 갖고 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이 7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완주군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민선 8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이 대한민국에 부는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지 못하면 완주군의 미래도 없다"면서 "완주의 든든한 아들 두세훈이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완주군 황금시대를 열어가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경험했던 소중한 의견들을 각종 발언과 건의안, 조례등에 반영해 많은 의정활동 성과도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특히,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

두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완주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완주 군수가 되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하면서 미래 완주의 비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수가 된다면 완주군을 ▲자영업 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수소산업 1번지 ▲만경강 둔치를 생태문화공원 1번지 ▲교육때문에 완주군을 떠나는 일이 없는 교육혁신 1번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행정혁신 1번지 ▲농업유통혁신 1번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혁신 1번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튼튼한 완주의 아들 두세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군수가 돼 완주군민과 함께 완주군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완주군 봉동 출생인 두세훈 의원은 봉동초, 완주중, 전라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대 최연소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전북도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일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지속적인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도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올해도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전북도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일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지속적인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도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올해도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검출

환경 10km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대상 이동제한 등 실시

전북도가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6일 확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야생조류에서 도내 4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곳이며, 부산 사하(낙동강 하구)에 이어 전국 10번째이다.

도는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9호(닭 55호, 오리 3호, 메추리)에 대한 이동제한, 예방 및 소독조치를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경 10km 내 닭 55호 및 메추리 1호에 대한 현장 임상검사 및 오리 3호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동물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0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 장점마을 보상 절차 '속도'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인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전북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